

#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 국민청원

### “남편 여의고 두딸 키우며 온힘 다해 살아” “죽는 날까지 김태현 격리돼야”...유족 격분 “김태현 사건”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이 살해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이 피의자 김태현(25)을 법정최고형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피해자 중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우나 이틀 들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 등으로 불리길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가 딸들이 어렸을 때 남편을 여의고 두 딸을 보고 건강히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다”며 “조카들은 모두 대학까지 진학해 본인들의 적성을 찾아 각각 동물병원과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며 자신들의 길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김태현의 범행으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고 언급하며 “피해자의 삶과 일상이 사람의 발을 쓴 악마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고 분노했다.

그는 “김태현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스토킹하고 일가족을 살해한 뒤 증거를 인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김태현의 범행에 격분하는 모습도 보였다.

유족은 김태현이 송치 당시 취재진 앞에서 보였던 모습을 언급하면서 “김태현의 사과를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어떤 의도에서 사소한 것이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태현의 행동과 태도는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니다”라며 “그동안 밝혀진 증거를 토대로 김태현이 얼마나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자인지 철

— 청원진행중 —

**김태현 살인 사건(노원 세 모녀 살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가해자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정의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참여인원 : [ 4,185명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시작 2021-04-19	청원마감 2021-05-19	청원인 kakao-***
------------	-----------------	-----------------	---------------

저히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족은 김태현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글을 전하는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금 유사 범죄라도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유족으로써 슬퍼하지만 하며 가만히 있었던 저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현과 같은 잔인한 살인자는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야 한다”며 “김태현이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41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

이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흥기를 흥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 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정기자

## 완도해경, 민·관 합동 정박어선 화재진압 대응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12일 전남 해남군 어란항에서 밀집된 정박 어선 화재 발생을 가정한 민·관 합동 소화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항포구 내에서 밀집되어 정박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연안구조정에 보유 중인 배수펌프 이용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화재진압의 계류된 줄을 강제 절단하여 화재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대비 ▲화재신고 접수·전파 ▲소화전 이용 초기 화재진압 ▲화재선박 계류된 줄 강제 절단 분리·합동 화재 진압 ▲사후 강령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해남 소방차량 5대, 송지지구대 순찰차, 민간해양구조선 2척 등이 동원 되어 상황발생 시 협력 대응체계 강화와 어란 항포구 총 7개소 소화전의 위치,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진압 가능 수압 상태(4kg/cm이상) 전수점검과 소화전 공동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완도=이민혁기자

## 영암소방, 캠핑장화재안전키트 무료대여서비스추진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코로나 19로 늘어나는 캠핑족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대책으로 캠핑장 화재안전키트 무료 대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등 6개소(F1오도캠핑장, 천황야영장, 프리미엄 키즈글램핑, 들소리 키즈글램핑, 상대포 역사공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 예정이라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화재안전키트는 방염포, 소화기, 연기감지기로 구성되어 화재경보 및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조대호기자

## 나주경찰, 나주시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나주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4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나주시 관련 부서와 함께 관내 주요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점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호수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빛가람전망대 내 공중화장실 등 총 8개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하였다.

점검에는 전문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고 불법 촬영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김상철 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일상공간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근절 및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광양소방, 봄철산림들불화재예방노력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최근 지역 내 건조해진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봄철 산림·들불 화재 예방을 저감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들불 화재는 총 6538건 발생했다. 들불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95%(61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 쓰레기소각이 2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 화재의 절반 이상(55%)이 2월에서 4월 사이 발생했다.

이에 광양소방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대상 예방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소방차량 활용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선제적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림·들불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따라서 산림 인접지역 내 쓰레기 및 논두렁 발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광양=심종섭기자

## 민주당 담양 확진자 이용 광주 식당 곳곳서 바이러스 검출

### 주방 손잡이·테이블·카운터 등 다양

민주당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확진자가 이용한 광주 한 식당의 다양한 물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20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담

양사무소 확진자가 이용한 광주 광산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대해 현장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총 5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손잡이 없는 식탁을 비롯해 음식

값을 계산하는 공간과 탁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했다.

또 주방 손잡이와 음식을 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카트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시설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전반적으로

지켜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주방 용품 등 다양한 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식당 이용자에 대해 검사를 안내했다.

최이슬기자

## 신생아 던져 숨겨, 아내 행위 방조 친부 점유→실형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아내의 행위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성종용 고법판사)는 20일 영아살해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45분 사이 아내 B(23)씨가 광주 남구 모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기는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숨져 있었다.

A씨는 아내 B씨와 통화에서 출산 사실을 듣고도 “마음대로 하라”며 양육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 출산 전날까지 유산과 낙태를 중용했다. 양육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중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심은 “A씨는 아내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과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